

**박상옥 후보
그가 대법관이 되어선
안 되는 이유**

1987년 1월 14일,
대학생 박종철 고문 폭행으로 사망

1987.01.15. 강민창 치안본부장 발표
“**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**”



오연상 전문의, 황적준 부검의

“고문 가능성 있다”

그러나, 검찰은

“조용한 수사 마무리”

지시

- 1987.1.19. 고문치사사건 수사 중간보고서

1차 수사 결과

고문 가담 경관 5명 중 2명만 기소

부실 · 졸속 수사

1차 수사팀 : 신창언-안상수-박상옥 (현 대법관 후보자)



“고문 경관 더 있다”

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

김승훈 신부 폭로

1987. 5. 18.



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..

사건축소 경찰 측 책임자

강민창 치안본부장 무혐의 처리

꼬리자르기 수사

2차 수사팀 : 신창언-김동섭-안상수-이승구-박상옥(현 대법관 후보자)

밝혀내지 못한걸까?

밝혀내지 않은걸까?

박상옥 후보자의 해명

**“결코 진상을 알면서
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은
없다”**

- 2015.4.5.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



“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”

박상옥 검사는
영터리 사건경위보고서 작성자가
누구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!

누가, 왜 작성했는지 신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!

결국 2차 조사에서 홍승상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1계장
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

물고문은 5명이 한 조, 상식인데도
박상옥 검사는 치안본부가 지목한 **2명 외**
공범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!

“(박상옥 검사가) 반금곤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되어있느냐” 고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.

- 고문경관 강진규 공판진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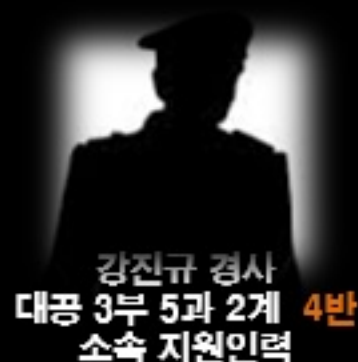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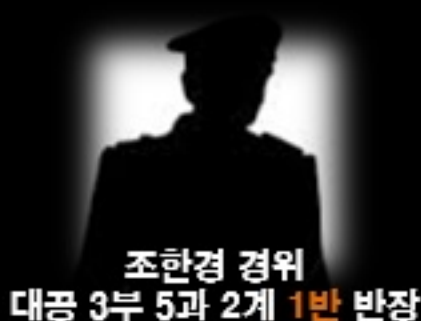
**박상옥 검사는
공범들을 조사하고도
고문 가담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!**

숨겨진 3명의 고문경관 황정웅, 반금곤, 이정호 중
2명 황정웅, 반금곤 을 참고인 조사하고도 공모사실을
밝혀내지 않았습니다



박상옥 검사는 고문경관 두 명의 소속이 다른데도 합리적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!

반이 다른 경관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
당시 관행이 아니었습니다
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1반 소속 공범
들을 1차 수사에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



박상옥 검사는 **엇갈린 진술**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!

2차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박종철의 동료 **ㅎ씨**를 의정부교도소로 데려가 조사실(14호실)에 있던 경관들 신원을 확인했습니다



조사실에 **5명의 형사**가 있었고
그 중 한 사람이 저를 신문했다
- 박종철의 동료 **ㅎ씨**

저는 당시 14호실에서 반금곤과
함께 **ㅎ씨**를 신문하고 있었다

- (2차에서 공범으로 밝혀진) 황정웅 경위

저는 **ㅎ씨**를 동행하여 황정웅과
함께 14호실에서 신문했다

- (2차에서 공범으로 밝혀진) 반금곤 경장



1차 수사 때부터
고문치사 축소.은폐 진실을
밝힐 수 있었지만
그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

**고문치사 축소 · 은폐 가담자
박상옥 후보**
**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,
대법관 자격 있습니까?**